

초록

기존 P2P대출 플랫폼 업체들은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뿐, 투자와 관련된 위험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한국 P2P대출 플랫폼 업체들이 분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주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검색과 미디어, 평판에만 의존해 투자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으로 잘 알려진 3개의 업체 사례분석을 하고자 한다.

1. 서론

현재 국내 P2P 플랫폼 비즈니스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은행과는 다르게 단순 중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인공지능’기법을 도입하여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대출자산의 연체율 및 부도율을 관리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등의 거래 및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큰 차이점이다. 그럼에도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면 인공지능 기반 신용분석 모델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환경으로 발생하는 한계점과 신규업체 진입 시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P2P 플랫폼 비즈니스, 인공지능 신용분석 및 기존 문헌 고찰

온라인 P2P 금융 서비스는 클라우드 펀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 기관투자자, 개인사업자, 일반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P2P대출 분야의 세계시장 거래금액은 201년 34억 달러에서 2025년 1조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의 거래 절차는 일반적으로 차용인은 개인정보(나이, 직업, 결혼 여부, 성별 등) 및 대출정보(대출용도, 신용 등급, 특수기록 등) 등을 플랫폼에 제공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차용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온라인 P2P 플랫폼에 공개되며, 투자자는 공개된 차용인의 세부정보를 확인후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현재 국내 P2P대출 규제상 투자자와 대출자 간 직접대출 형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위업체들은 대부분 신용위험이 적은 담보대출 및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8퍼센트, 렌딧, 어니스트 펀드 등은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큰 개인신용 대출 시장에 집중하며 업체별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개인신용 대출시장은 미국에서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고 변동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 신용 대출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투자 시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은 회사마다 특색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며, 반복 학습을 통하여 대출 신청자의 연체율, 부도율, 부도시 손실가능금액 등을 예측하고 신용등급을 부여한다. 신용분석의 목표는 중금리 대출신청자 군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대출 신청자를 선정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동일 신용 등급 간에서 관찰되는 연체율,부도율보다 개선된 결과를 얻는 것이다.

3.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P2P 대출 플랫폼 업체들의 인공지능 기반 대출자 신용분석 사례들을 개념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질적 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여러 사례를 선정한 뒤, 각 사례의 세부적인 기술과 주제들을 제시하고, 사례들의 의미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훈 및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4. 사례분석

4.1. 8퍼센트

인공지능 챗봇 ‘에이다’를 활용하여 대출 신청자의 기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로부터 개인신용평가 점수에 관한 정보를 유로로 취득한다. 금융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경우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SNS를 이용하여 소셜 분석을 수행한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심리분석방식을 사용하여 보완한다. 첫째, 수집된 금융, 비금융, 정형, 비정형 데이터는 ANN, SVM 등 분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학습을 수행한다. 둘째,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채권의 만기, 이율, 대출 가능 금액 등이 결정된다. 대출 심사 통과율은 약 3%로 알려져 있다.

4.2. 렌딧

미국의 ‘렌딩클럽’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사로부터 정보를 받아 자체 심사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다. 통계에 기반한 수많은 기준을 통해서 대출자를 100여개 군 중 하나의 군으로 배치해 신용평가를 진행하며, 대출 신청자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출사기 방지 프로세스’도 함께 심사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출자의 과거 신용등급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여 신용평가를 진행하며 비금융데이터와 렌딩클럽이 공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4.3. 어니스트 펀드

국내 최초의 ‘행동과학 기반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심리분석 기반 신용평가모형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상황 의지를 측정하는 모형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심리검사에서 상황 의지와 관련된 심리특질, 행동패턴, 성격 등의 데이터를 뽑아 이를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닝 방식으로 학습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결과 토의 및 시사점

P2P대출 플랫폼은 기존의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규제가 적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로 거래비용이 대폭 절감되며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대출사기, 중개업체 도산, 고객 신용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생길 위험성이 있다. 인공지능을 통한 대출심사 방식이 정성적 판단 지표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윤리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증받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왜곡된 대출 신청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인공지능 신용대출 심사 결과가 P2P 대출 플랫폼 업체의 연체율 및 부실자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